



단기적으로는 valuation 매력 높은 은행 위주로 접근 권고

은행 Weekly | 2026.7.20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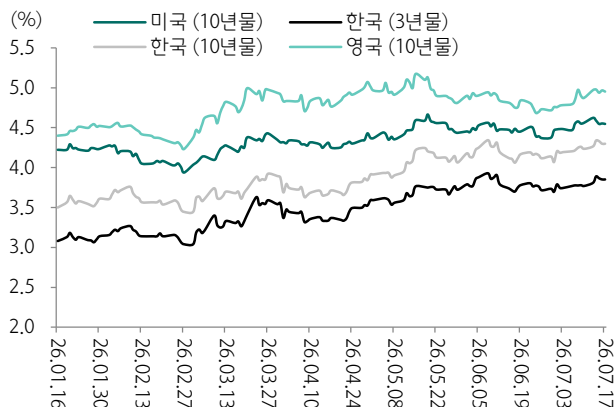
- 금융위가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신보와 기보는 출연금 재원으로 통상 약 15배 규모까지 보증을 공급하는데 이에 4.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부 대출이 새롭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
-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와 BNK금융의 합병을 공식 제안. 지방금융 생존전략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JB금융 지분 15% 보유해도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 JB금융은 올 하반기 700억원 규모 추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예고한 상태
- 올 하반기 M&A 대어로 꼽히는 롯데손보의 우선협상자로 신한금융이 유력.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와 신한금융은 1조원 안팎의 인수가를 두고 막판 협상 진행 중. 롯데손보 인수시에 KB금융과의 리딩뱅크 경쟁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전망
- 안도걸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 대해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안정성과 핀테크 지분 34%를 통한 혁신성을 결합한 발행 지분 구조 제안. 이 같은 입장은 한은 등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핀테크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7월 16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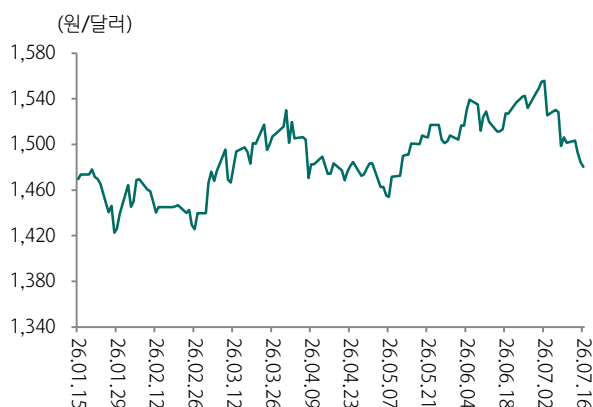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59	7.0	22.7		5,576,917.8	-8.8	-20.2	9.5	61.8	-1,636.8	98.8	746.0	732.2
은행	0.73	8.4	9.0	0.64	217,877.6	0.6	3.0	4.8	32.8	198.6	29.1	-108.6	-76.2
KB 금융	0.97	9.9	10.2	0.78	64,234.0	-1.8	6.8	11.6	45.2	56.3	-21.0	-64.4	7.6
신한지주	0.82	10.1	9.3	0.66	51,215.2	-1.2	2.2	8.0	40.3	30.2	-5.2	-12.9	-4.6
우리금융	0.57	7.3	8.2	0.52	22,934.8	0.2	-3.2	-11.6	12.5	26.2	2.7	-19.8	-6.5
하나금융	0.75	8.5	9.3	0.64	37,533.5	6.5	5.8	11.7	45.4	55.8	44.7	-6.3	-46.1
기업은행	0.46	6.1	7.6	0.55	17,224.4	1.6	-3.6	-5.5	3.1	2.5	-0.1	5.7	-8.5
BNK 금융	0.49	6.6	7.7	0.53	5,688.3	2.7	1.7	-4.3	15.5	0.5	-1.5	7.6	-8.0
이M 금융	0.44	6.1	7.5	0.47	2,915.5	3.1	1.7	-1.6	18.4	9.4	2.4	-6.0	-5.0
JB 금융	0.78	6.9	11.9	1.00	5,158.2	5.2	-0.5	-11.8	6.8	17.8	7.1	-12.6	-5.2
카카오뱅크	1.54	19.1	8.3	0.72	10,973.8	0.4	-3.4	-10.3	6.5	-9.8	-9.7	27.1	-17.1
삼성카드	0.60	8.5	7.2	1.97	5,451.2	-2.8	-9.0	-14.0	-15.8	0.2	0.3	0.2	-0.4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0.6% 추가 상승해 KOSPI 하락률 8.8%를 2주연속 큰폭 초과상승. 은행주는 올해 상반기 중 KOSPI를 83.7%p 초과하락했지만 7월에만 약 32.7%p 초과상승 중. 은행주 강세의 배경은 전전주와 동일했는데 1) 반도체 조정 양상 지속으로 국내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은행주를 매수하고 있고, 2)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하면서 금리 모멘텀도 이어지고 있으며, 3)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선을 하회하는 등 원화 강세 현상으로 은행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 주도업종 하락으로 방어적 매력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 미국 6월 CPI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7월말 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되었기 때문. 다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하락 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음. 전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5%로 한주간 1bp 하락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4.18%로 3bp 하락. 국내 국채금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세 지속.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된데다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상승 폭은 크지 않았음. 3년물 국채금리는 3.85%로 한주간 8bp 추가 상승했고, 10년물은 4.30%로 7bp 추가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 지속. 한때 1,480원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1,486.0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12.5원 추가 하락. 외국인인 지난주 KOSPI를 약 7,460억원 순매수했지만 은행주는 1,090억원을 순매도했고, 국내 기관은 KOSPI를 약 1.6조원 순매도했지만 은행주를 2,000억원 순매수. 지난주에는 KB금융만 약 500억원의 자사주를 순매수하면서 모든 은행들의 상반기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
- 전주 특징주는 하나금융과 JB금융. 주가가 6.5%와 5.2% 상승해 상승 폭이 가장 컸는데 하나금융의 경우 KB금융과의 PBR gap이 상당히 커지면서 상대적 가격매력이 부각되었고 환율이 추가 하락하자 투자심리가 개선. 여기에 안도걸 의원 인터뷰 등 원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에 대한 기대감도 한 몫한 듯. JB금융은 얼라인파트너스의 JB와 BNK 통합 검토 공개 제안 등이 영향을 미침. 얼라인의 발표 이전인 10일과 13일 주가가 급등한 이후 14일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음
- 얼라인파트너스의 JB, BNK 통합 검토 공개 제안에 대한 시장 반응은 뜨겁지 않은 것으로 추정. 발표 이후의 주가 반응도 이를 반증. 얼라인의 내부 목적(15%룰에 따른 지분 매각 리스크, 사모펀드로서 향후 exit시 매각 더 용이)은 차치하고라도 통합시 장점은 분명히 존재. 우리는 은행지주사 대형화에 따른 성장성 확대 및 영업 경쟁력 강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1)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을 하락, 2) 통합시 AI 중복 투자 감소 및 전산시스템 비용 절감, 3) 통합 은행지주 시가총액 증가에 따른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등의 긍정적인 영향은 가능. 다만 은행간 통합이라는 것이 각사 내부의 필요성과 절실함에서 시작되어도 쉽지 않은 작업인데 정치권도 아닌 일부 주주의 요청과 압력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편. 통합 추진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 재무적 효과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고유의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영호남의 은행지주사가 서로 합쳐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고, 2) 통합 후의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공산이 커 이는 통합 작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3) 지역 기반이 상충되어 통합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부 중복 부분에 대한 인력 감축은 불가피해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4) 수익성이 엄연히 다르다고는 하지만 JB와 BNK의 PBR 차이가 상당히 커 단순 시가 기준으로 통합비용을 산출시 BNK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 8월 7일까지 검토 착수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는데 이사회의 결정이 관건. 검토에 착수할 경우 컨설팅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
- 금주 신한지주와 KB금융을 시작으로 2분기 어닝시즌 개시. 특히 양사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큰 만큼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시현될 지가 시장 관심사. 그동안 은행주는 매번 실적시즌 전후로 주가가 크게 상승해 왔지만 1분기에는 부진했던 바 있음. 중장기적으로 은행주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근 초과상승 폭이 컸던 만큼 일시적으로는 조정을 보일 여지도 있음. 은행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와 KB와 신한, 하나금융 등 대형은행지주사를 중장기 선호 종목으로 유지.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주가가 매우 부진했던 우리와 i금융 등이 Gap 메우기 측면의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우리금융(매수/TP 43,000원), i금융(매수/TP 24,500원)

- 올해 KB와 신한, 하나금융 등이 40%대의 주가상승률을 보인 반면 우리금융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 13% 상승에 그침. 2분기에도 실적은 컨센서스 소폭 상회해 그치겠지만 현 PBR 0.57배로 너무 지나친 저평가. 실적 발표 전후로 반등 시도 예상
- i금융도 실적 모멘텀 크지 않지만 현 PBR 0.44배에 불과. 하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 500억원 예상되어 주주환원 관련 모멘텀 발생 기대. CET 1 비율이 최대 관심사인데 3분기에는 12.3% 상회 예상. 동시에 밸류업 업그레이드 방안도 발표될 전망

Global Peer Table

(2026년 7월 16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59	7.0	22.7		5,576,917.8	-8.8	-20.2	9.5	61.8
은행	0.73	8.4	9.0	0.64	217,877.6	0.6	3.0	4.8	32.8
KB금융	0.97	9.9	10.2	0.78	64,234.0	-1.8	6.8	11.6	45.2
신한지주	0.82	10.1	9.3	0.66	51,215.2	-1.2	2.2	8.0	40.3
우리금융	0.57	7.3	8.2	0.52	22,934.8	0.2	-3.2	-11.6	12.5
하나금융	0.75	8.5	9.3	0.64	37,533.5	6.5	5.8	11.7	45.4
기업은행	0.46	6.1	7.6	0.55	17,224.4	1.6	-3.6	-5.5	3.1
BNK금융	0.49	6.6	7.7	0.53	5,688.3	2.7	1.7	-4.3	15.5
IM금융	0.44	6.1	7.5	0.47	2,915.5	3.1	1.7	-1.6	18.4
JB금융	0.78	6.9	11.9	1.00	5,158.2	5.2	-0.5	-11.8	6.8
카카오뱅크	1.54	19.1	8.3	0.72	10,973.8	0.4	-3.4	-10.3	6.5
삼성카드	0.60	8.5	7.2	1.97	5,451.2	-2.8	-9.0	-14.0	-15.8

미국

S&P 500	5.06	21.8	22.0	5.73	66,631.2	-1.5	0.6	4.9	8.9
은행	1.69	13.1	13.0	1.14	2,311.3	0.5	3.7	9.7	7.7
Wells Fargo	1.56	12.6	13.1	1.02	267.8	0.4	4.4	8.1	-6.1
JPM	2.48	14.2	18.3	1.36	914.0	1.4	2.7	10.4	5.9
CITI	1.10	11.7	9.9	0.70	220.6	-8.1	-10.0	-1.7	10.9
BOA	1.52	13.2	12.1	0.99	434.8	2.7	8.4	14.2	11.4
US Bancorp	1.57	12.2	13.1	1.18	98.4	1.2	10.0	11.9	18.3
PNC	1.69	13.3	13.1	1.27	101.5	0.4	8.5	12.5	21.1
BB&T	1.06	11.6	9.4	1.05	65.4	1.6	9.0	4.9	6.7

중국

상해A주지수	1.31	13.4	10.0	1.43	60,411.2	-5.6	-7.8	-6.0	-5.2
은행	0.66	7.2	9.4	0.69	11,807.0	3.1	1.2	1.4	-7.8
공상은행	0.65	7.4	9.1	0.68	2,559.4	3.3	2.9	4.1	-4.5
건설은행	0.71	7.7	9.6	0.73	1,937.9	3.3	2.3	10.1	9.5
농업은행	0.76	7.8	9.8	0.59	2,190.9	2.6	-2.1	-7.7	-16.8
중국은행	0.67	8.0	8.5	0.64	1,789.2	2.9	2.4	5.4	4.0
교통은행	0.49	6.4	7.8	0.62	575.3	3.3	1.5	0.6	-5.8
초상은행	0.80	6.4	12.9	1.13	971.1	3.1	2.2	-1.2	-9.7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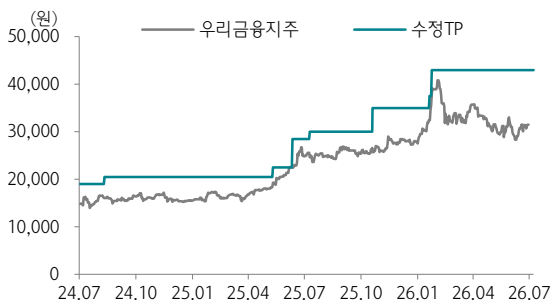
NIKKEI	2.81	22.3	12.4	4.33	1,004,652.4	-6.4	-8.2	9.8	27.4
은행	1.47	15.2	9.5	0.48	138,159.5	-2.1	3.8	16.8	37.7
Mitsubishi UHF	1.84	17.5	10.8	0.61	41,216.6	0.3	6.1	21.0	39.3
Sumitomo Mitsui Financial	1.65	16.2	10.8	0.61	25,724.6	-1.4	4.2	20.1	33.3
Mizuho	1.76	16.3	11.4	0.43	19,371.7	-4.5	-0.9	17.2	39.1
Sumitomo Mitsui Trust	1.35	14.9	9.3	0.37	4,507.3	-1.6	6.9	20.0	35.0

유럽

MSCI Europe	2.38	16.0	14.3	1.76	15,422.9	-0.1	0.5	4.1	8.5
은행	1.54	11.5	13.6	0.73	2,124.4	-0.4	2.2	10.9	15.8
HSBC	1.85	12.3	15.4	0.83	256.4	1.4	3.8	9.9	27.1
Santander	1.59	11.6	13.4	0.77	173.5	-2.7	-0.7	8.3	17.3
BNP Paribas	0.92	8.8	11.0	0.45	112.3	1.2	0.7	11.3	26.2
Credit Agricole	0.73	7.9	9.6	0.28	53.8	1.7	1.5	6.9	1.3
Deutsche	0.86	9.4	9.6	0.47	58.9	-1.8	1.1	11.7	-6.9
Unicredit	1.81	11.0	17.3	1.26	121.5	-2.9	1.3	15.1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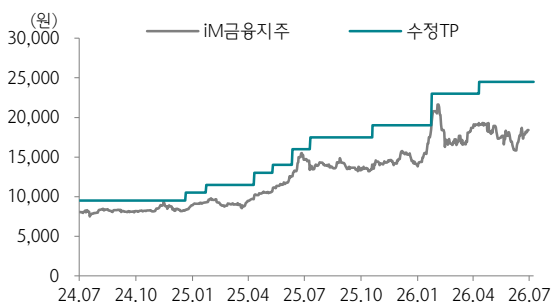
투자조건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우리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43,000		
26.2.7	BUY	37,500	-6.47%	-5.07%
25.11.7	BUY	35,000	-19.83%	-7.29%
25.7.28	BUY	30,000	-15.26%	-10.50%
25.6.30	BUY	28,500	-13.16%	-6.14%
25.5.29	BUY	22,500	-7.11%	0.22%
24.8.29	BUY	20,500	-20.23%	-10.54%
24.3.21	BUY	19,000	-23.12%	-12.63%

iM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29	BUY	24,500		
26.2.11	BUY	23,000	-21.75%	-5.87%
25.11.7	BUY	19,000	-21.91%	-2.58%
25.7.29	BUY	17,500	-20.98%	-15.09%
25.6.30	BUY	16,000	-10.24%	-3.06%
25.5.29	BUY	14,000	-16.30%	-10.14%
25.4.29	BUY	13,000	-19.30%	-17.77%
25.2.10	BUY	11,500	-19.99%	-15.04%
25.1.8	BUY	10,500	-14.72%	-11.62%
24.6.25	BUY	9,500	-13.31%	-1.79%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7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조건 비율공시

- 투자건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69%	2.31%	0.00%	100%

* 기준일: 2026년 7월 16일